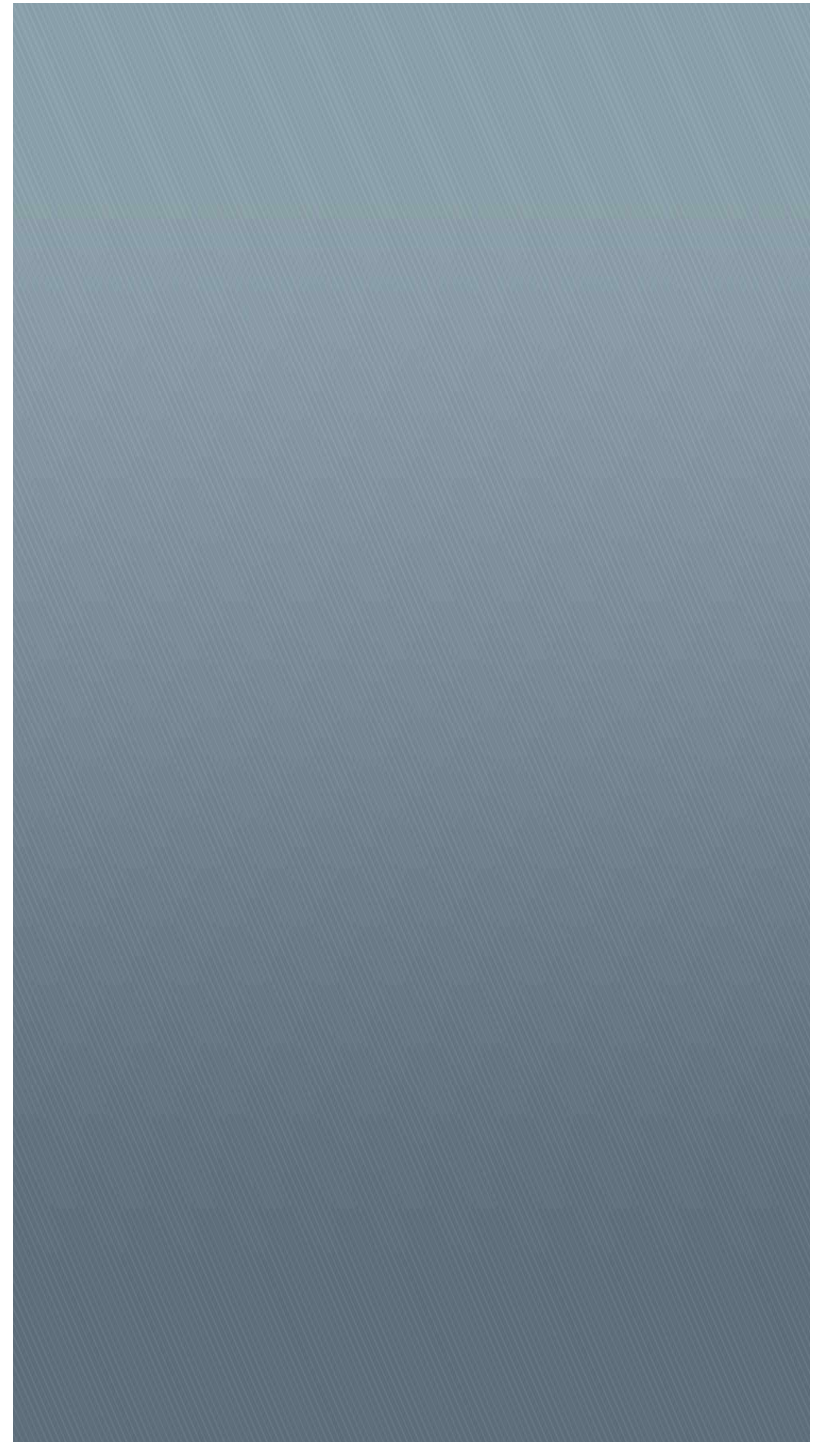


# 문화콘텐츠 입문

---

2019. 3. 15.

# 역사와 역사콘텐츠



# 역사콘텐츠란?

역사를 소재로 한 콘텐츠

역사를 다양한 매체로 전달하는 것

역사란?

## 역사란 무엇인가?



“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”

-E.H. Carr-

-과거의 사실을 현재의 관점으로  
바라보는 것

-역사가에 의해 선택된 과거의  
사실만이 역사가 됨

역사란 무엇인가?



**“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 
지속적인 상호 작용의 과정,  
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”**

**-E.H. Carr-**

## 역사란 무엇인가?

19세기  
역사학  
역사는  
객관적  
사실을  
나열하는 것.  
해석 불필요.



Carr의  
입장  
역사의 본질은  
과거의 사실과  
해석 사이의  
어디에 있음



20세기  
새로운 조류  
역사는  
객관적일 수  
없음.  
해석의 목적성.

## 사실과 해석





## 사실과 해석: 정조의 '알려진' 발언



“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.”

- 정 조 -



## 사실과 해석: 정조의 '진짜' 발언



“과인은 사도세자(思悼世子)의  
아들이다. (그러나) 선대왕께서  
종통(宗統)의 중요함을 위하여  
나에게 효장세자(孝章世子)를  
이어받도록 명하셨으며, 아! 전일에  
선대왕께 올린 글에서 ‘근본을 둘로  
하지 않는 것’에 관한 나의 뜻을 크게 볼  
수 있었을 것이다.”

## 사실과 해석: 정조의 '진짜' 발언



“예(禮)는 비록 엄격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나, 인정도 또한 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, 향사(饗祀)하는 절차는 마땅히 대부(大夫)로서 제사하는 예법에 따라야 하고, 태묘(太廟)에서와 같이 할 수는 없다.”

## 사실과 해석: 정조의 '진짜' 발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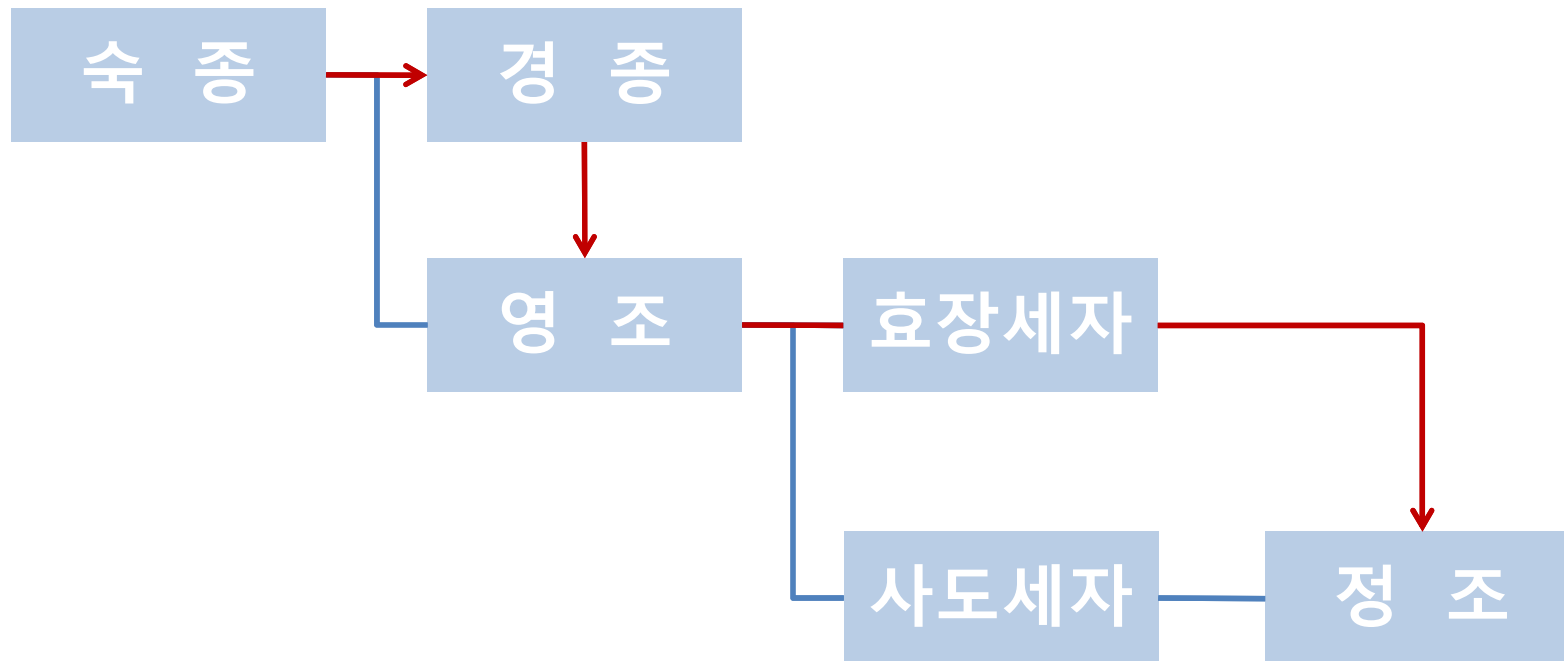
“혜경궁(惠慶宮)께도 또한  
마땅히 경외(京外)에서 공물을  
바치는 의절이 있어야 하나  
대비(大妃)와 동등하게 할 수는  
없으니, 유사(有司)로 하여금  
대신들과 의논해서 절목을  
강정(講定)하여 아뢰도록 하라.”

## 사실과 해석: 정조의 '진짜' 발언



“이미 이런 분부를 내리고 나서  
괴귀(怪鬼)와 같은 불령한  
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 
추숭(追崇)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 
선대왕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 
있으니, 마땅히 형률로써  
논죄하고 선왕의 영령(英靈)께도  
고하겠다.”

## 사실과 해석



<정조 가계도>

# 사실과 해석

## 해석 1

사도세자에 대한 의례의 원칙 천명.  
우리 아버지는 효장세자가 맞는데,  
친부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 
허용되는 한 극진히 대접하겠다!

## 해석 2

우리 아버지는 사도세자다!  
노론 너희 각오해야 함.

모든 해석은 인정받아야 하는가?

역사와 역사문화콘텐츠의 차이